



미 증시, 지표 호조에도 숨고르기 장세

미국 증시 리뷰

29 일(화) 미국 3 대 증시는 미국 3 대 증시는 4 월 주택지표, 6 월 소비자신뢰지수 등 주요 지표 호조, 리치몬드 연은 총재의 시장 친화적 발언에도, 사상최고치 경신 부담 속 고용지표 대기 심리 등으로 숨고르기 장세가 출현하며 소폭 상승(다우 +0.03%, S&P500 +0.03%, 나스닥 +0.19%). 업종별로는 기술(+0.7%), 경기소비재(+0.2%), 헬스케어(+0.1%) 등이 강세, 유틸리티(-1.7%), 커뮤니케이션(-0.5%), 에너지(-0.5%) 등이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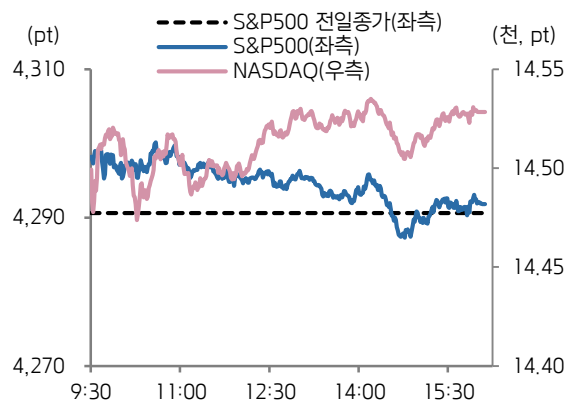
6 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는 127.3 으로 전월(120.0) 및 예상치(118.7)를 모두 상회하며 작년 3 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현재여건(148.7→157.7), 기대(100.9→107.0) 등 현재 및 미래 소득, 고용 전망에 대한 소비자들의 낙관론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 4 월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는 +14.6%(연율)로 1987 년 이후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저금리 기조 속 대도시 주택 수요 증가로 미국에서도 부동산 강세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고용시장의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이 8~9 월 경에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 다만, 코로나 이후 충격으로부터 완전하게 회복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기 때문에, 테이퍼링은 고용의 상당한 진전을 보이지 않은 이상 시작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

미국 증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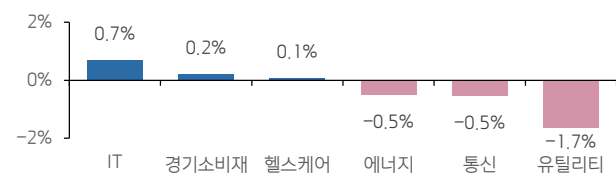
최근 미국 증시는 견조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인 시장 상승 탄력은 둔화됨에 따라 개별 이벤트에 따라 업종간, 종목간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순환매 장세를 연출하고 있는 모습. 여전히 인플레이션 민감 장세에 놓여있는 만큼, 6 월 소비자물가 지표 발표 전까지 현재의 주가 패턴이 지속될 가능성 존재. 이로 인해 시장 참여자들의 피로감이 누적됨에 따라, 중간 중간 포지션 청산 물량을 소화하면서 숨고르기 장세가 수시로 출현할 수 있음. 그러나 전일 주요 실물 경제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근 변종 코로나 창궐에도) 경제 정상화는 현재 진행형이며, 향후 인프라 투자 집행 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유효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S&P500 일종 차트(6월 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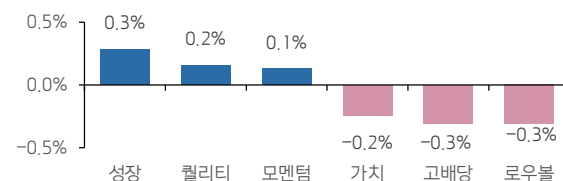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6월 29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6월 29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37%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07%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07%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32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환율 부담에 따른 외국인 수급 여건 개선 지연 가능성 2. 장중 발표되는 중국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지표 결과 3. 애플의 신규 아이폰 출시 기대감 부각에 따른 국내 관련 밸류체인주들의 주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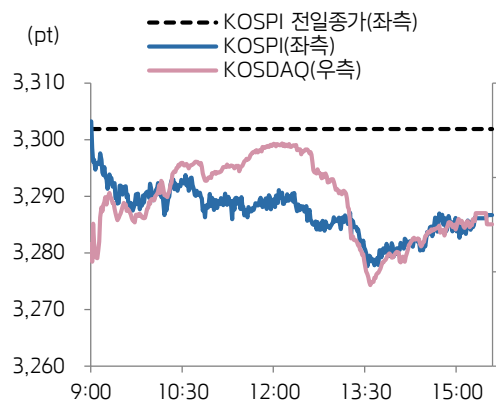
한국 증시 리뷰

29 일(화) 코스피는 단기적인 지수 레벨 부담 속 델타 변이 대유행 가능성에 따른 경기 회복 지연 불안심리 확산 여파로 외국인과 기관이 대규모 동반 순매도세를 보임에 따라 3,300 선을 하회. 다만, 중국 외자 판호 발급 기대감에 따른 게임주 강세, 정치 테마주 강세, 카카오(+1.9%), 네이버(+0.9%) 등 일부 대형 성장주 강세가 지수의 추가 하락세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코스피 -0.5%, 코스닥 +0.5%). 업종별로는 의료정밀(+1.4%), 섬유유복(+0.4%), 서비스(+0.4%) 등이 강세, 철강금속(-2.3%), 보험(-1.6%), 통신(-1.6%) 등이 약세. 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500 억원, 6,800 억원 순매도에 나선 반면, 개인이 2,300 억원 순매수를 기록.

한국 증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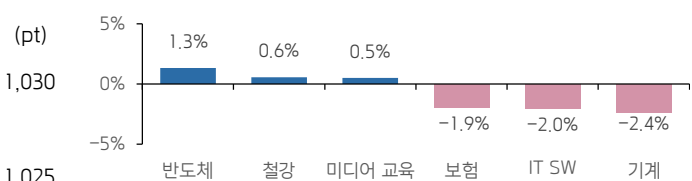
한국 증시는 원/달러 환율 상승 부담, 2 분기 실적 시즌 관망심리 부각에도, 미국의 주요 지표 호조에 따른 경기 정상화 기대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강세 등이 지수 하단을 지지하며 강보합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금일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수는 재차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세계적으로 변종 코로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축소될 것으로 판단. 국내 증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뚜렷한 주도 업종, 주도 테마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일에도 개별 재료에 따라 업종 및 업종 내 종목간 엇갈린 추가흐름을 보일 가능성을 염두. 추가적으로, 최근 중국 경기 모멘텀 둔화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장 중에는 중국의 6 월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지표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KOSPI & KOSDAQ 일종 차트(6월 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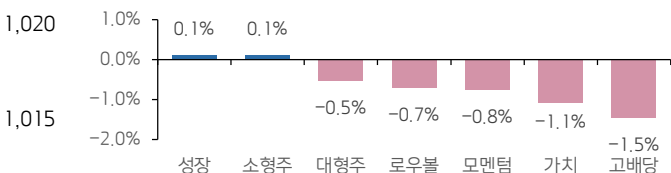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6월 29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6월 29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